



### 공동체 소식



## 대림 제2주일

살아 있는 이들의 하느님, 저희 마음에 참된 회개의 열망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어, 강생하신 말씀이 이 땅에 심으신 정의와 자비와 평화를 실천하게 하소서.



#### 12월 기도지향

- 김호원(요한), 박정자(수산나) 가정
- 정준구(파비아노), 박혜정(카타리나) 가정

#### 대림시기

대림시기는 ‘예수 성탄 대축일’ 전의 4주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대림’(待臨)이라는 말은 ‘도착’을 뜻하는 라틴 말 ‘앗벤투스’(Adventus)에서 온 것입니다. 이 대림 시기의 첫 주일부터 한 해의 전례주년이 시작됩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기다리며, 회개와 속죄의 생활로 그분을 맞이합니다.

#### 대림 특강

- 일시 : 12/15(일) 중심미사
- 주제 :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 ☞ 오클라호마 공동체의 오정 보나벤투라 신부님(미리내 천주성삼 수도회)께서 특강을 해 주시겠습니다.

#### 구역별 판공성사

- 12/13(금) : 3/5구역, 양경직 돈보스코 형제님 택
- 12/19(목) : 4구역, 박희영 카타리나 자매님 택
- ☞ 오후 7시까지 해당 가정에 모여 고해성사가 진행되는 동안 ‘묵주기도’를 바치겠습니다. 대림시기이므로 조출한 다과 후,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 맨하탄 공동체 미사

- 일시 : 12/14(토) 오전 11시
- 장소 : 토마스 모어 성당

#### 예비자 집중 교리

- 일시 : 12/20(금) ~ 12/22(일) 오후 7시
- 장소 : 회관

#### 기타

-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 미사는 없습니다.
- ‘매일미사’ 책 신청 받습니다. 배송료 포함, 1년 구독료 60불입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울	성 체	마 침
89	219	160/178	93

#### 주일미사 복사

	향 복사	시중 복사
금주	정수한(베 드 로) 정예찬(미 카 엘)	이우영(가브리엘) 이원준(요 한)
차주	차호섭(요 셉) 차서은(세라피나)	안광민(야 고 보) 안광희(크리스토퍼)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명은(안 젤 라)	차호섭(요 셉) 최선윤(마 리 아)
차주	최은미(아 네 스)	문석찬(요 셉) 백문주(엘리사벳)

#### 애찬 봉사자

금주	최선윤, 신혜경, 정선식, 서정애, 김수연
차주	문문주, 최은미, 박정옥, 안이, 박정자

#### 헌금 봉사자

금주	김시연(엘리사벳), 백문주(엘리사벳)
차주	문석찬(요 셉), 최은미(아 네 스)

#### 우리들의 정성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12/1	95명	391불	2,380불
이우석, 고영방, 도태영, 남기하, 김창식, 김대성, 김호원, 안동현, 이우영, 류기범, 이영민, 김정애 (총 12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원철 바실리오 412.576.5075 willkim777@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M: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회장 정수한 베드로  
M: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오늘은 대림 제2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요한 세례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권고합니다. 다가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참된 회개를 하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시작은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얼마나 인간의 가치가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의 모상으로서의 품위를 잃어 가는 수많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성화해설

세례자 요한의 설교  
(도메니코 기를란다요, 1486-1490년, 프레스코화,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 플로렌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마태 3,2) 세례자 요한이 강조한 회개는 불안정하고 잘못된 생활에서 새로운 희망과 올바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며,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삶에서 하느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느님 나라를 맞이하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통한 삶의 변화는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시기의 삶의 자세입니다.

지영현 시문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 서 : 이사 11,1-10 < 그는 힘없는 이들을 정의로 재판하리라. >



정 의 가 꽃 피는 그 의 성 - 대 에 영 원 히 평 화 넘 치 리 이 다

- 하느님, 당신 슬기를 왕에게 내리소서, 당신의 정의를 왕자에게 내리소서, 의로써 당신 백성 다스리게 하시고, 공의로써 그 가난한 이들을 다스리게 하소서 ◎
- 정의가 꽃피는 그의 성대에, 저 달이 다하도록 평화 넘치리이다. 그는 바다에서 바다에 까지, 강물에서 땅 끝까지 왕하시리라. ◎
- 당신께 하소하는 가난한 이와, 외롭고 불쌍한 이를 구하시기 때문이니, 약하고 아쉬운 이를 어여뻐 여기시고, 당신께서는 없는 이의 목숨을 살려 주시리이다. ◎
- 그의 이름은 끝이 없이 기려지고, 빛나는 해와 함께 길이 남으리이다. 세상의 족속들이 그이 안에 복을 받고, 못 백성 그를 일컬어 복되다 하리라. ◎

제 2 독 서 : 로마 15,4-9 <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복 음 : 마태 3,1-12 <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

# 쉐 마

## “소박하게 오시는 예수님”



오늘은 대림 제2주일이자 제32회 ‘인권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에 맞갖은 삶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교회가 만천하에 천명하는 날입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라도 그 중심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진정한 안녕과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경제 개발논리로 인하여 공동선이 파괴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권리가 훼손되는 현상을 끊임없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국내 인권 문제에는 다소 관심과 지지를 보내지만,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먼 나라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몇 해 전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지구촌 생명체들이 사용하는 신진대사의 필수기본요소 여섯 가지 중에서 ‘인’(P)을 대신하여 독극물인 ‘규소’(Si)를 사용해 생명을 유지하는 바이러스를 발견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것이 이렇게 심오한데, 하물며 우리가 생명을 조정하고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시 한 번 깊게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말씀에서 세례자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마태 3,2,11)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천하고 초라한 것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때, 비로소 소박하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알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말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굳이 인간의 생명을 갖고 태어나고자 하시는 아기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느껴 볼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곧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립시다.

- 서울대교구 전영준 바오로 신부 -

지구 온난화 문제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어느 학생이 했던 이야기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국내의 환경 파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 그 문제에 대한 글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지구촌에서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 에너지를 사용해 보지도 못한 어느 나라가 얼마 지나지 않아 물에 잠기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국토가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 사회는 생명을 희생해 가면서 까지도 경제적 효율성만을 강조하며 물질과 편리함 안에서 헛된 행복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이 지구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물질만능주의와 생명 경시 풍조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였으며, 우리들을 ‘죽음의 문화’ 현상들의 위협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 마중물

## “교황님은 고해성사를?”

교황 프란치스코는 고해성사를 얼마나 자주 할까?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대답해 주었다.

교황은 11월 20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된 일반알현에서 자신은 2주에 한 번씩 고해성사를 보러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일을 지겨워하지 않으시며, 죄를 사해준다고 말하는 것을 즐기는 사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해준다고 말했다.

교황은 특유의 웃음과 유머로, “한 번 빨개지는 것(to turn red)이 수천 번 누렇게 뜨는 것(turn yellow)보다 낫다”고 말했다. 교황은 즉 자신은 사람들이 사제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일을 당혹스러워하는 것을 잘 알지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치유와 건강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교황은 ‘개인주의와 주관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현대사회에서 가톨릭 신자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사제의 직무를 통한 고해성사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교황은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개별적으로 모든 죄인들을 일일이 용서하신다”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께, 그리스도는 당신의 교회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속한 백성들이 공동체의 사목자를 통해서 용서받길 바라신다”고 권고했다.

“사제들, 주교들까지,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고해성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교황은 “저도, 교황도 역시 죄인이어서 2주에 한 번씩 고해성사를 보러 간다”며 “제 고해사제는 제 고백을 듣고, 조언을 주고, 그리고 제 죄를 용서해준다”고 말했다.

교황은 특히 교회는 용서의 ‘주인’이 아니라, “이 은총의 선물을 선사할 때마다 크게 기뻐하는”, 용서의 ‘봉사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 대주교님 서한

다음은 캔사스 대교구 요셉 대주교님의 사목방문 후, 대주교님께서 저희 한인 공동체에 보내신 서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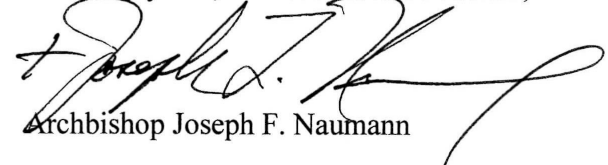
Dear Fr. Joo,

Thank you for your hospitality during my recent pastoral visit to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I was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to celebrate Mass and greet the people in your community. It was also an inspiration to receive a glimpse of all you do in service of the Lord and His Church.

Thank you for arranging all the details that were part of the pastoral visit. Thank you for the beautiful statue of Mary, the flowers and generous stipend. Please be assured of my prayers for you and the people of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With gratitude for your dedicated priestly ministry, I remain

Sincerely yours, in Jesus the Lord of Life,

  
Archbishop Joseph F. Naumann